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공사현장 '비상'

도내 39대 무기한 파업 돌입
 "임금인상·소형 크레인 철폐"
 대규모 아파트 신축 상당수
 장기화 땀 공기지연 불가피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도내 건설현장 21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 신축 중인 고층 건물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한국노총 강원도지역본부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지난 3일부터 임금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철폐를 요구하며 도내 건설현장 21곳에 설치된 70~80m 높이의 타워크레인 39대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조종실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고층농성 중인 현장은 춘천 P아파트, 원주 E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와 고층건물 신축현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현장은 타워크레인 작동이 멈춰선 데다 흑시모를 사고위험으로 인해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기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임금 7~8% 인상을 요구하며 국토부와 사측이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운전석 없이 리모콘으로 조종이 가능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도입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형 타워크레인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춘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모(54)씨는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몰수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지리나 마찬가지로 주장했다. 이어 "타워크레인 기사가 표면상 고소득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건물공사가 끝나고 나면 길게는 8개월까지 실직자 신세가 된다"며 임금인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도내 곳곳에서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이어지자 건설업계는 노사협상과정을 예의주시하며 공사차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공사비가 증가되고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지연 등으로 인해 임주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기영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4일 춘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 소형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명준



대한건설협 강원도회 임원연석회의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오인철)는 4일 도회 회의실에서 도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임원연석회의를 가졌다.

건협 강원도회, 운영위원·윤리위원 연석회의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운영위원·윤리위원 연석회의를 강원도 춘천시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21대 집행부 임기 마무리에 따른 현안사항 협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강원도회는 제21대 임원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건설관련 규정 개정동향도 발표했다. 주요 발주처 시설공사 입찰참가 자격 조정 사례도 언급됐다.

작년 건설업 매출증가율 첫 역성장

전년 대비 마이너스 1.2% 기록
韓銀, 2013년 통계 이후 '최저'
자산 증가율도 -0.6%로 뒷걸음
수익·재무건전성은 다소 개선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증가율이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주택 건설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건설기성액이 전년 대비 급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기업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에 종사 중인 1617개 외감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1.2%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통계를 편제한 2013년 이후 역대 최저치이자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건설업 매출액증가율은 매해 4% 이상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건설업 매출액증가율은 2013년 5.3%를 기록한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2%, 5.5%, 5.9%로 조금씩 성장하며 매년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2017년에는 11.7%를 기록하며 10%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로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주택건설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기성액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건설기성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2017년에는 건설기성액 증가율이 15.9%까지 올라섰지만 지난해 들어 -1.5%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연도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2016	5.9	3.4	4.9	3.5	164.8	25.6
2017	11.7	3.8	6.2	5.7	129.1	21.5
2018	-1.2	-0.6	6.3	6.9	122.3	20.9

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2017년에는 건설기성액 증가율이 15.9%까지 올라섰지만 지난해 들어 -1.5%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건설사의 외형도 작아졌다.

지난해 건설업의 총자산 증가율은 -0.6%를 기록해 2016년(3.4%), 2017년(3.8%)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수익성은 안정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건설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3%로 전년(6.2%)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비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5.3%)보다도 1.0%p 높다.

매출액 세전순이익률로 보면 건설업은 6.9%를 기록해 2016년(3.5%)과 2017년(5.7%) 대비 각각 3.4%p, 1.2%p 증가했다.

재무건전성도 개선됐다. 건설업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22.3%로 전년(129.1%) 대비 6.8%p 축소됐다. 차입금 의존도 역시 지난해 20.9%를 기록하며 전년

(21.5%)보다 0.6%p 완화됐다.

한편 지난해 전체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4.2%로 전년(9.9%)보다 5.7%p 내려갔다.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7년 9.5%에서 작년 4.3%로, 중소기업은 11.3%에서 3.9%로 각각 둔화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9.8%→4.5%)과, 비제조업(9.9%→3.8%)이 모두 줄어들었다.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1%, 중소기업은 5.9%로 모두 0.5%p씩 악화했다.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7년 8.4%에서 작년 8.1%로, 비제조업은 6.0%에서 5.3%로 하락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은 32.3%로 2013년 통계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